

# 민주 '대화록 공세' 차단 고민... 코너몰린 親盧

# “국군포로 등 이산가족 7만명 북에 현물 주고 상봉 시키자”

“파장 최소화”...검찰 수사 끝날때까지 무대응 전략

친노 진영 해명도 미흡...적절한 대응책 없어 답답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여당의 공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수습을 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민주당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공식대응을 자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여권의 공세를 일일이 맞받아치다가 관을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과 관련, “우리가 지금 대응할 게 뭐가 있는가. 검찰수사가 끝나면 입장을 내면 된다”며 “새누리당이 대화록 '장사'를 하는데, 말러들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기조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무대응' 전략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화록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했던 열람위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위원회

를 최근 결성해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노 진영에서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 지도부의 답답함은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와 발표에 앞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노진영에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의 목소리도 점차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노 그룹의 정리된 입장 표명과 문 의원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녁'에 출연, “지금(참여정부 인사들) 모두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받을까 생각한다”며 “친노(친노무현) 그룹과 노무현재단이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야만 민주당도 함께 보조를 취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의원에 대해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인 스스로 (NLL 포기 발언이 있으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음원파일을 공개하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예당초 대화록 공개를 반대했었고 기본적으로는 음원파일 공개 역시 반대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국민이 만약 공개를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포항 남·울릉 재선거에 출마하는 허대만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문재인 의원이 (입장을) 발표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밝혀 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8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허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허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 돌아온 손학규, 첫 메시지는 '통합'

기조연설서 '새 정치' 언급...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8일 '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과감히 펼쳐 일어서 자기 정치세력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는 통합의 정치”라고 역설했다.

8개월간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귀국한 손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산하 동아시아미래연구소 7주년 창립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통합'을 화두로 정치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고문은 독일의 성공 원인을 '통합의 정신과 그 실천'에서 찾은

뒤 '다양성 위의 통합'과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자기의 지지기반에 집착,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정치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의견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은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맹목적인 권력 분산의 차원에서 정치적 단견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 “헌법개정 만능주의에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가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 불신을 받는 게 헌법상의 권력구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헌법도 제대로만 지키면 권력분산과 견제의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 고문은 “독일 복지제도의 시발점도 사회통합으로, 복지국가 실현은 확고한 역사적의식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의 비전에 따라 실시구체적으로 접근할 일이지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30 재보선 대진표 확정...여야 총력전

화성갑, 서청원 vs 오일용

포항남·울릉, 박명재 vs 허대만

경기 화성갑과 포항남·울릉 두 곳에서 치러지는 10·30 재·보선에 출마할 여야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여야는 8일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8일 오후 당사에서 화성갑 서청원, 포항남·울릉 박명재 후보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9일 오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주말에는 포항남·울릉의 박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기 화성갑에 오일용 현 지역위원장을, 포항남·울릉에는 허

대만 현 지역위원장을 각각 대항마로 낙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민주주의 후퇴 등을 공약 포인트로 내세우고, '비리·철새 정치인' 대 '지역을 지켜 온 참신한 일꾼'의 구도로 표심을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화성갑에 대해 별도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여당 뒷방에 도전장을 낸 허 후보를 격려하고 이번 재·보선에서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글날 맞아 국회의장 명패도 한글로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장석에 놓인 명패가 한글로 바뀌어있다(오른쪽). 왼쪽은 지난 7일 한자로 된 명패가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전국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 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 → **영광**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빌리지**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6-092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정로5가 버스도모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함평 영업 절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용센터 옆 상업지64평 원룸적합 1억6천
- 계림동구호빌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무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인근 원룸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솔로스티움도·엘도라도 가능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항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면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송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송촌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송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할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7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746억 최저7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713억 최저7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71억8천만
- ▷ 북구 유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71억 최저7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72억3천만 최저7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711억 최저7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730억 최저7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794억 최저7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능)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